

전남도교육청

# 교육감 인사 재량권 강화한다

교장·장학사 전보 인사때  
서열 명부 상관없이 인사  
20~30% 범위내서 가능  
일부선 교육감 줄서기 우려

전남도교육청이 올 9월 교장·장학사(교육연구사) 전보 인사부터 도 교육감의 재량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교육력 향상을 위해 초·중등 교장과 장학사 인사 관리 기준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된 인사 관리기준에 따르면 교육감이 교장 결원 예정 학교 20%(초등)와 30%(중등) 범위내에서 전보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는 근속경력·근속기간·학교 경영 능력평가 등이 반영된 평점점을 토대로 작성된 전보 서열 명부에 따라 교

장 전보 인사를 단행했으나, 교육감이 교장 전보 인사 수요의 20~30% 범위에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보 인사를 단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2011년부터 서열 명부를 작성해 교장 전보 인사를 단행해 온 결과, 연공서열 등에서 밀린 역량 있는 교장들의 학교 선택권이 줄어드는 등 문제점도 발견됐다”며 “교육력 강화를 위해 교육감의 교장 전보 인사 재량권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서열 명부에 따르지 않고 교장 전보 인사를 하게 되면 서열에서 밀린 교장(후보)이 근무여건이 좋은 학교에 발령 받는 등 과격적인 인사가 단행될 수도 있다.

도 교육청은 또한 개정된 인사 관리 기준에 따라 본청과 직속 기관 업무 특

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내신과 관계 없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학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장학사의 경우도 연공서열 등 내신에 따라 인사가 이뤄졌으나 교육력 제고를 위해 교육감의 인사 재량권을 넓혔다”고 말했다.

개정된 인사 관리 기준은 올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일부에서는 현 교육감에게 줄을 서고 교육 현장이 정치화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남 모 교사는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육감의 인사 재량권 강화라고 말하지만 4년마다 교육감 선거가 있는데 교육 현장이 자칫 정치화할 우려가 있고 객관성 시비가 제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양수현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8일 오전 광주 북구 임동작은도서관에서 직원들이 개관을 앞두고 도서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경북, 中企 수출에 23억 지원

해외 판촉전 등 대체 서비스 마련  
수출현장SOS지원단 운영 등

경북도는 8일 대외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자 23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기업의 수출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자 경북도가 마련한 전략은 ▲화상 수출상담, 해외판촉전 등 대체 서비스 마련 ▲해외지사화, 해외공동물류센터, 해외인증 등 맞춤형 지원 확대 ▲수출현장SOS지원단 운영과 수출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등이다.

도는 먼저 사절단 파견, 해외전시회 참가 등 대면접촉 방식의 전통적인 해외마케팅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상 수출상담회를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을 시작으로 해외 바이어를 국가단위로 매주 발굴해 8월부터 상시로 상담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국가별, 품목별 상담회도 함께 마련했다.

7월에는 신남방국가, 8월에는 유럽 등 지역별 바이어와의 화상상담회를

지원하며, 9월에는 식품, 10월에는 부품소재 등 산업재, 11월에는 소비재 관련 바이어 화상상담회를 개최한다. 또 '방역 모범국 한국' 이미지로 호소세를 보이고 있는 농식품 수출을 더욱 늘리기 위한 판촉전도 확대해 운영한다.

미국의 H마트, 한남체인, 롯데마트에서 정구판촉전과 함께 특판전을 열고, 중국에서는 버섯 판촉행사, 호주와는 사인머스켓에 관심있는 바이어 초청상담, 베트남은 빈마트, 케이마켓을 활용한 판로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6개의 경북해외사무소와 해외 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지사화 사업도 새로 추진해 바이어 발굴에 나서는 한편, 코로나 이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KOTRA 해외무역관의 해외지사화 사업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해외공동물류센터 이용수수료를 상향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기업에게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해외인증 지원사업도 기존 2억8000만원 규모에서 1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

## 경북도 시장·군수 “통합신공항 조속한 이전부지 선정” 촉구

경북도시장군수협의회 토론회 가져  
“대구경북의 산업 지도 바꿀 대역사”

경북도내 시장군수들이 최근 담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조속한 이전부지 선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북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고윤환 문경시장)는 지난 7일 경북도청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관련된 토론회를 갖고 주요 현안과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착상황에 빠진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최악의 경우, 사업 무산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역 내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통합신공항이 군위·의성뿐아니라 23개 시군 공통의 문제라는 공감 확산으로 인해 추진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통합신공항은 지난 1.21일 주민투표 이후, 국방부의 ‘통합신공항의 이전부지는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로 사실상 결정’ 입장문 발표 및 군위군의 ‘우보’유치 입장 고수 등 입장 확인만 주고 받은 채 더 이상의 진전이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날 회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진행상황 및 주요현안 설명 ▲ 시장군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경북지역 시장·군수들이 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토론회를 마친 뒤 통합신공항 이전부지의 조속한 선정을 촉구하고 있다. /경북도청

수 자유 토론 ▲ 촉구결의문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모두발언에서 “통합신공항 건설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가 재도약하는 경북형 뉴딜 사업이 될 것이며,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장·군수님들이 해안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시장·군수들은 현안과 다양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단체장은 “통합신공항 유치를 위해 군위·의성 군민간 경쟁이 첨예하여, 양 군을 설득할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방부에 이전부지선정위원회의 조

속한 개최도 요청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통합신공항 건설은 550만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한결같은 숙원사업이다. 하지만 군위·의성간 계속되는 갈등으로 인해 시도민들은 이전부지 선정을 목전에 두고 사업이 자칫 좌초될까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70만 경북도민의 뜻을 모아 신속히 이전부지 선정이 이뤄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윤환협의회장은 “통합신공항은 군위·의성을 포함해 대구경북의 산업지도를 단번에 바꿀 수 있는 대역사라는 것이 시장군수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통합신공항이 원만하게 해결돼 조속히 하늘 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경북=문봉현 기자

## 안성시, 2020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선정

안성시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주관하는 ‘2020년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대상지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인 성남·옥천지구와 일죽지구가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회복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14년부터 경기도 내 원도심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노후 불량주택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개보수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경기도시공사의 기부금으로 지원되며, 사업내용은 주거취약계층 및 주거복지 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가구 노후 주택(자가, 임차)과 주민공동이용시설 개보수 공사로 진행된다. 시는 안성1동 성남·옥천지구의 노후주택 14가구, 일죽면 일죽지구의 주민공동이용시설 1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안성(경기)=이보현 기자 bhlee7777@

## 파주 운정테크노밸리 산단 공업물량 47만㎡ 배정

파주시는 운정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 안건이 원안 가결돼 향후 국토교통부 물량공급계획 변경 승인 후 공업물량 47만2600㎡가 배정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5월 28일 경기도는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규 산단조성을 위한 공업물량 배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를 열어 입지의 적정성, 입주수요 분석 등 사업계획서를 심도 있

게 심의했으며 지난 4일 파주시에 결과를 통보했다. 운정테크노밸리 조성으로 GTX-A, 자유로,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를 갖춘 개발사업의 최적의 입지여건 등을 활용해 3기 신도시 건설 발표에 따른 운정신도시의 베드타운으로의 전략을 방지하고 자족도시 건설 등 경제기반 구축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 오늘의 날씨

6월 9일 (화)  
음력: 4월 18일

수도권 날씨  
33 ~ 20°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 고양시 ‘청년인턴 200’ 사업 추진

고양시가 얼어붙은 민간 채용시장을 대신해 공공분야 청년 일자리를 확대해 청년들이 현실의 어려움을 덜고, 더 나아가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고양 청년인턴 200’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이 사업은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만 18세에서 39세까지 미취업 중인 고양시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전공분야와 자격증을 살려 시정연구·보건소·시립어린이집·청소년재단 등 고양시 여러 관공부서에서 근무하며 경험을 쌓을 수 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